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상과 실행과 건축

(금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5

교회생활의 실행에서 가져야 할 중대한 체험들

(2)

한 새사람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생활인

교회생활의 여러 방면

성경: 엡 4:12-14, 16, 18, 20-21, 24, 27, 29-30, 32

- I. 우리가 한 새사람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생활인 교회생활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해야 한다 — 엡 4:12, 16, 18, 21, 24, 30.
- A.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는 우리가 믿는 이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새사람의 일부로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기반이다 — 고후 13:14.
- B.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그분의 풍성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 엡 4:18.
- C.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는 하나님의 생명의 실행적인 면, 즉 하나님의 생명을 실행한 것이며, 이러한 실행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그분 안에서 일어났다 — 엡 4:21.
1. 이것은 신성한 생명이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실재로서 실현되고 실행된 것이다.
 2.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사신 경건한 생활을 믿는 이들에게 주입하기 위한 것이다.
- D.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 ...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었습니다.”라고 말한다.
1. 이 영은 도장 찍으시는 영, 심지어 도장 찍는 ‘떡’이시다. 우리 모두는 이 떡으로 도장 찍혔다 — 엡 1:13.
 2. 도장 찍으시는 영의 내용과 요소와 본질은 신성한 생명과 예수님의 실지적인 인성이 더해진 것이다 — 엡 4:18, 행 16:7.
 3. 도장 찍으시는 영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우리를 적시시고 침투하시고 잠기게 하신다 — 고후 13:14.
- E. 아버지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이고, 아버지의 생명이 실행된 것인 이 실재는 도장 찍으시는 영이 된다 — 엡 4:1, 21, 30.
1. 도장 찍으시는 영은 예수님의 일상생활에서 실행된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적시시고 침투하시고 잠기게 하시어, 우리의 생활을 예수님의 생활의 재생산이 되게 하신다.
 2. 아버지의 생명과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와 그 영의 도장 찍음이 함께하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곧 새사람 안에서의 생활인 그러한 일상생활을 가질 수 있다 — 엡 4:12, 16, 24.

II. 그리스도의 몸, 곧 한 새사람 안에서의 생활인 교회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러야 한다 — 엡 4:13.

- A.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그 영의 하나는 실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하나이고, 13절에서의 하나는 실행적으로 우리 생활에서의 하나이다.
1. 실재의 하나는 실행됨으로써, 실행적인 면에서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 엡 4:3, 13.
 2.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르다’라는 말은 우리가 실행적으로 우리 생활에서의 하나에 이르기 위해서는 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실재의 하나는 시작이고, 실행적인 면에서의 하나는 목적지이다.
- B. 실행적인 면에서의 하나는 믿음에서의 하나이다 — 엡 4:13.
1.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믿음’은 우리의 믿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한 인격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취하신 구속의 일과 같이 우리가 믿는 내용을 가리킨다 — 딤후 1:19, 6:10, 12, 21, 유 3.
 2. 교회생활에서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는 이들을 받기 위해 믿음 이외의 다른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은 분열적인 것이다 — 롬 14:1, 15:7.
- C. 실행적인 면에서의 하나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이다 — 엡 4:13.
1.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은 우리가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계시를 깨닫는 것이다 — 마 16:16.
 2. 믿음에서의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달려 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취하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에만, 우리는 믿음에서의 하나에 이를 수 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요 20:31, 갈 1:15-16, 2:20, 4:4, 6, 고전 2:2.

III.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곧 한 새사람 안에서의 생활인 교회생활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침의 바람의 내재적인 요소를 그 목적과 관련해서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 — 엡 4:14.

- A. 가르침의 바람은 교회 안에 폭풍을 가져오는 악한 자의 마귀적인 바람이다 — 마 13:19.
- B. 어떠한 가르침, 심지어는 성경적인 가르침일지라도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와 교회에서부터 빛나가게 하는 것은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중심 목적에서부터 떼내려가게 하는 바람이다 — 딤후 1:3-4, 엡 3:9-11, 17, 21, 5:32.
- C. 가르침의 바람의 내재적인 요인은 사람들의 속임수, 사람들의 간교하게 속이는 방식들,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려는 사람들의 간교한 술수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사탄적인 오류의 체계로 유도하는, 사람의 계획된 속임수이다. 오류의 체계는 원수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 엡 4:14.
- D. 가르침의 바람의 목적 —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는 사탄의 악한 목적 — 은 사랑과 인자함 안에서 몸의 유일한 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는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딤후 2:18), 교회를 파괴하며(행 8:3),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건축을 좌절시키고 허물며, 몸의 지체들을 분열시키는 것이다(고전 1:10-11).

IV. 그리스도의 몸, 곧 한 새사람 안에서의 생활인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 엡 4:20.

- A.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틀 안으로 넣어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다 — 롬 8:29.
1.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실 뿐 아니라 분이시다 — 요 13:15, 벰전 2:21.
 2. 그리스도는 그분의 생활에서 사복음서에 계시된 대로 하나의 본을 세우셨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다 — 고전 2:2, 15:45하, 롬 8:10, 골 3:4.
 3.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통하여 그분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께 배우는 것이다 — 요 11:25, 요일 5:11-12.
- B.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서 기본 요소들은 실재와 은혜이다 — 요 1:14, 엡 4:21, 24, 29.
1. 실재는 진리, 원칙, 본, 기준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침례를 통하여, 주 예수님의 삶에 의해 세워진 본과 기준과 원칙 안에 두어졌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실재이다.
 2.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다 — 엡 4:20-21.
 3. 이러한 기준을 살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곧 우리의 누림과 공급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 엡 4:29.
- C. 긍정적인 면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의 기본 요인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다. 또한 부정적인 면에서 기본 요인은 마귀인데, 이 마귀는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손상시킬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다 — 엡 4:18, 27, 30.

V. 그리스도의 몸, 곧 한 새사람 안에서의 생활인 교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그 영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용서할 수 있다 — 엡 4:32.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하나에 이름

믿음에서의 하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에 이르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을 얻다’로 번역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실행적인 하나를 얻거나 이루려면 과정이 요구됨을 가리킨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그 영의 하나는 실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하나이고, 반면에 13절에서의 하나는 실행적으로 우리 생활에서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미 실재에 있어서 신성한 생명의 하나를 가졌다. 그것은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실행에 있어서 우리 생활의 하나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아가야 한다. 하나에 대한 이 측면은 두 가지 곧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온전한 지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의 믿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한 인격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취하신 구속의 일과 같이 우리가 믿는 내용을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의 믿음은 유다서 3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서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은 우리의 체험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계시를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인격을 가리키는 한편,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은사를 갖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분의 위임을 가리킨다. 우리가 생명이 자랄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만을 더욱 붙잡게 되며 분열을 야기하는 중요하지 않은 교리들에 관한 모든 관념들은 더욱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실행적인 하나에 이르고 이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충분히 자란 사람에 이르게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의 하나와,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의 차이를 모르고 있다. 첫 번째 것은 실재의 하나이며, 두 번째 것은 실행적인 하나이다. 그 영은 우리의 하나의 실재이시기 때문에, 그 영의 하나는 실재의 하나이다. 하나란 바로 그 영 자신이다. 그 영이 없다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실재에 있어서 하나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실행적인 하나도 요구된다. 이는 실재의 하나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즉 실행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실행적인 면에서 하나를 말하고 있다.

실재의 하나와 실행적인 면의 하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 이따라서 실행적인 면의 하나에 '이르러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영의 하나는 시작인 반면,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는 목적지이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 영의 하나에서부터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까지 여행해야 함을 가리킨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재의 하나에서부터 실행적인 면의 하나에 이르게 될 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믿는 이들은 이미 실재의 하나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실재의 하나를 지키는 최선의 길은 실행적인 면의 하나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의 믿음은 우리의 믿는 행위가 아닌 우리가 믿는 대상을 언급한다는 것을 이미 지적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은 이 믿음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처음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매우 단순했다. 믿음이 우리가 가진 전부였다. 그러나 우리가 각종 교리들과 가르침들과 관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매우 복잡해지면 거의 모두가 나누어진다.

몇 명의 젊은이들이 동일한 전도자의 복음 전파로 같은 때에 구원받았다고 하자. 구원받은 날 그들은 모두 믿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여러 가지 다른 교리적인 관념들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관념들은 그들을 서로 나누어지게 한다. 이 믿는 이들이 믿음의 하나에 이르려면 사도들과 신언자들과 복음 전하는 이들과 목자들 및 교사들의 일을 통해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이 온전하게 하는 일은 그들에게 그 영의 하나를 주의하게 하고 분열적인 교리들을 제쳐 놓게 할 것이다. 그들이 믿음의 하나에 이르게 될 때 더 이상 각종 분열적인 교리들을 주의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의 일에 관한 유일한 믿음만을 주의하게 된다. 온전하게 하는 일에 의해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체험적으로 이르게 된다. 그들은 분열적인 교리들이나 실행 등에는 주의 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만 주의한다. 그들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 들을 체험적으로 온전히 아는 것을 주의하며,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갈 망한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 믿는 이들은 실재의 하나뿐만 아니라 실행적인 면의 하나도 갖게 된다. 이제 그들은 분열 없이 함께 모일 수 있으 며 실행적인 면의 하나를 누릴 수 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하나는 그런 실행적인 하나이다. 우리의 하나는 우리의 유일한 믿음과 하 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이며, 이것은 생명이신 주님께 대한 매일의 체험 안에 있 다. 나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대부분이 이미 실행적인 면의 하나에 이르렀다고 믿는다. 그러 므로 우리는 실재와 실행적인 면에서 하나 안에 있다.

오늘날 상당수의 목사들과 사역자들을 포함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행적인 면 의 하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실재의 하나, 곧 그 영의 하나를 갖고 있다. 이런 많은 그리스 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는 이들이고 우리 안에 그 영께서 내주하시는 한, 우리 는 모두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옳다. 그러나 이 하나는 아직 실행적인 면 의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실재이지만, 실행적이지는 않다. 그러므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실재의 하 나와 실행적인 면의 하나 사이에 있는 거리를 여행해야 한다.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출발지인 그 영의 하나에서부터 목적지인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까 지 여행했다. 우리는 실재의 하나에서부터 실행적인 면의 하나에까지 여행한 것이다. (*에베소서 라이 프 스타디*, 43장, 403-406쪽)

가르침의 바람

하나님의 경륜과 다른 가르침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단의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의 바람에 대해 말하고 있 다.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믿는 이들을 벗어나게 하는 어떠한 가르침도, 비록 그것이 성경적인 것일지 라도, 하나님의 중심 목적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바람이다.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은 바울 당시에 어 떤 사람들이 다르게 가르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이단을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 하 나님의 신약 경륜과는 다른 것을 가르쳤다는 의미이다. 그들의 가르침은 신약 사역의 가르침이 아니었 다. 신약 안에는 하나의 사역이 있다. 이 사역은 교회들을 건축하기 위해 믿는 이들 안에 삼일 하나님을 분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과는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치는, 즉 교회들을 건축하기 위 한 하나님의 분배와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어떠한 가르침이나 가장된 사역을 조심해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각종 가르침의 바람에 의해 떠밀려 갔다. 모든 교파나 독립 단체들 은 어떤 종류의 교리적인 바람의 영향 아래 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파도에 밀리거나 바람 에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도 아직 그러한 파도와 바람의 영향 아래 있는지의 여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내가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어떠한 파도에도 밀리지 않으며, 어떠한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주의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내게 기도로 말씀 읽는 것에 관해 물었다. 나는 기도로 말씀 읽는 것을 위하지 않고 그리

스도와 교회를 위한다고 대답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자신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들을 나와 다르게 만든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강하게 물 침례를 반대하면서 약세를 강조한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형제님, 나는 약세를 주의하지 않고, 도리어 당신을 주의합니다. 나는 단지 당신을 주님 안에 있는 나의 형제로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를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그와 같게 된다. 그러나 그는 약세를 주장함으로 자신을 나와 다르게 만든다. 그러므로 나 아닌 그가 반드시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떠한 차이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이 주님의 회복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마 그리스도와 교회 이외의 어떤 것들을 관심했을 것이다. 어떤 특별한 교리나 실행이나 일 등을 주의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주의한다. 신약 경륜은 몸의 건축을 위해 삼일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증거이며, 또한 하나님의 회복이다. 만일 우리가 언제나 우리 앞에 이 목표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떠한 가르침이나 관념이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속임수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의 속임수’를 말하고 있다. 헬라어로 속임수란 말은 노름꾼들의 사기를 의미한다.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중심 노선에서 떠나게 하는 바람인 가르침들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교묘하게 사람들의 속임수를 이용하여 만들어 낸 사기이다. 아무리 어떤 가르침이 좋게 보여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속임수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일 뿐 아니라 악한 음모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어떤 교리가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그 교리는 그러한 사악한 음모에 이용될 수도 있다.

간교한 술수

이 구절에서 바울은 또한 간교한 술수를 언급하고 있다. 이 단어는 어떤 악한 꾀가 포함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술수에는 음모를 꾸미는 것과 속이기 위해 꾀를 부리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오류의 체계에 빠지도록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이라고 말한다. 분열시키는 이러한 가르침들은 심각한 오류를 야기해 몸의 생활의 실행적인 하나를 손상시키도록 사탄이 조직화하고 체계화한 것이다. 그 음모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지만, 그 체계는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임을 보았다. 사탄은 이것을 증오한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결국에는 오류의 체계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악한 음모의 일부로서, 가르침들과 관념들과 교리들과 간교한 의견들을 사용한다. 얼마나 마귀적인가!

주님께서 원수의 간교함을 드러내시기를 바란다. 이럴 때 성도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와 교회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꾸며진, 속이는 가르침들과 관련된 오류의 체계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44장, 416-418쪽)

그리스도를 배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이 20절에서 말한 것에 대한 어두운 배경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신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야 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라고 선포한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4장 2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할 때 바울이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라. 또한 다음 구절에서도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이 문제는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실 뿐 아니라 본(本)이시다(요 13:15, 벰전 2:21).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닌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에게서 배운다(마 11:29). 신약에 의하면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바로 오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 땅에서 삼십 년을 사신 후 또 다른 삼 년 반 동안을 사역하셨다. 삼십삼 년 반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그분은 본(本)과 표준을 세우셨다. 이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다. 사복음서가 쓰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본, 즉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그분의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삶의 모형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신약은 네 방면에서 쓰인 유일한 전기인 주 예수님의 전기를 보여 준다. 주 예수님은 복음서들에 계시된 본을 세우신 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바로 부활 안에서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신약에 따르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으로 놓여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실 때, 우리를 틀 안으로 넣으신 것이다. 마치 자매들이 밀가루 반죽을 어떤 모양의 틀 안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틀대로 형태 짓고자 하신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가 많은 형제들 중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틀에 넣어져 형태가 빚어지는 것이다. 맏아들은 본이시고,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은 이 본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룬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본(本)대로 형태가 빚어지는 것,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침례에 의해 하나님은 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넣으셨다. 침례 받는다는 것은 틀이신 그리스도 안에 두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6장 3절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둘 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그분 안으로 장사되는 것이다. 이 침례의 무덤이 본이요, 틀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침례 받았을 때, 이 틀 안으로 넣어졌다. 틀 안으로 넣어짐으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그리스도 안으로 장사됨으로써 우리는 아담과 옛 창조물에서 나오게 되었다. 침례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을 말할 때 왜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침례로 우리가 그분 안으로 장사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우신 본을 따라 형태가 빚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본을 세우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시어,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침례 받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이요 틀이신 그분 안으로 넣으셨음을 이미 지적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할 수 있었다. 신약의 빛과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고, 우리 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넣어짐으로써 그리스도를 배웠다.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는 주 예수님께서 세우신 본에 따른 삶을 살기를 깊은 속에서 갈망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이가 이 갈망을 소홀히 하거나 자기 노력으로 그분을 닮는 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이 갈망을 발전시킨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훈련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그분을 닮아야 하지만, 그들의 타고난 생명에 따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곧 실재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실지 상태이다. 타락한 사람들인 이방인들의 경건하지 않은 행함 안에는 공허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경건한 삶 안에는 진리, 즉 실재가 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삶 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이다.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 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게서 배웠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의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이미 지적했다. 또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다는 것도 이미 보았다. 이 틀은 사복음서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이요, 절대적으로 진리에 따른 삶이다. 진리는 빛이 비치는 것이요, 빛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요일 1:5), 진리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복음서들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에 대한 모든 측면이 하나님의 표현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셨다. 이 하나님의 표현이 빛이 비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진리이다. 진리에 따른 예수님의 이 삶이 하나의 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본 안에 두셨다. 이 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웠다. 이것은 복음서가 보여 주는 진리에 따라,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주 예수님의 삶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뜻이다. 이 삶이 빛의 비침이고, 빛의 비침은 진리이며, 진리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 안에 진리가 있다. 주 예수님께서 세우신 본의 본질은 진리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본질이 진리라는 뜻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웠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말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는 17절에 있는 헛된 생각과 대비된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헛된 생각으로, 우리 믿는 이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삶을 산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 결코 공허함 안에서 행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항상 진리, 즉 거룩한 빛의 비춤 안에서 행하셨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표현 안에서 사시고 행하셨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이 진리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웠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46장, 431-434쪽)